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최 옥 순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
대학교
CHOSUN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of Physically Challenged School
Graduate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2007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최 옥 순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특수교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최 옥 순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
CHOSUN

최옥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희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양성은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일 (인)

2006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6
1. 지체부자유학교 교육	6
2. 중도·중복장애의 정의 및 특성	7
3. 중도·중복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이념적 배경	10
4.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	16
5.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19
6. 중도·중복장애인의 진로 및 생활실태	21
7. 선행연구 고찰	23
III. 연구방법	27
1. 연구 참여자	27
2. 연구도구	30
3. 연구절차	32
4. 자료분석 및 타당화검증	34
IV. 연구 결과	37
1. ‘의미있는 진술’과 주제의 유목화	37
2. 체험의 기본구조와 의미	58

3. 통합적 진술과 유효성 확인	64
V. 논의	66
VI. 결론	69
1. 결론	69
2. 제언	71
참 고 문 헌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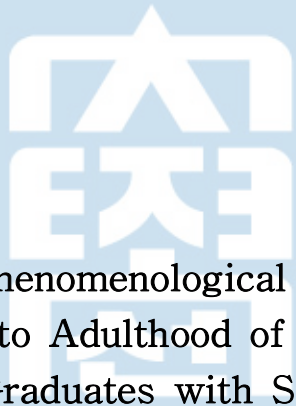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29
<표 III-2> 졸업생에 대한 면접 질문지	30
<표 III-3> 졸업생 부모님에 대한 면접 질문지	31
<표 III-4>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소요시간 및 장소	33
<표 IV-1>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38
<표 IV-2>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고용)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42
<표 IV-3>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이용시설 및 기관)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46
<표 IV-4>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여가생활)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50
<표 IV-5>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52
<표 IV-6>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54
<표 IV-7>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앞으로의 삶)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56
<표 IV-8>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기본구조와 의미	59
<표 IV-9>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의 기본구조와 의미	60

<표 IV-10>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경로 ... 63

<표 V-1> 지체부자유학교 졸업생 현황(00학교) 67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of Physically Challenged School Graduate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Choi Ok-Sun

Advisor : Prof. Kim Young-Il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n life of physically challenged school graduate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Fifteen physically challenged school graduate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ed on a 2-item questionnaire (for school education that they received) and one 5-item questionnaire (for life after school graduation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he researcher conducted unstructured interviews individually with each participant.

Al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by the researcher. The study was guided by Colaizzi's method for

doing research. Based on the students' interviews, essential themes of experience emerged: needs of transition education based o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no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low wages, need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difficulties for using the facilities and center for the disabled, no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fter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aningless leisure time, difficulty of using a means of transportation and no ways for the motorized wheelchair, limited support system only for welfare recipients, needs of the steady supports for medical services and rehabilitation, fear of the future etc.

Finally, this thesis concluded with discus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supporting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각 학생의 장애 특성과 요구, 능력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갖고 장애인들에게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2006년 현재 특수학급 5,204개, 특수학교 143개교이며 이중 지체부자유 특수학교는 23개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양적인 발전과 함께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수차례 개정해 오면서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학생 개인의 장애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 학생들의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의 적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중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전환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재활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장애가 다양해지고 중증화 되어감에 따라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고용모델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은 차치하고 직업전문학교나 직업재활시설에도 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직업훈련을 마친 후에도 취업과

연결되지 못해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입법가, 교육행정가, 부모들이 장애 졸업생의 교육, 직업, 자립생활 상황이 어떠하며, 특수교육을 통해 졸업 후 성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PL 99-457에서는 학교를 떠나는 장애학생의 상황과 앞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졸업생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박희찬, 200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의 확대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증대에 힘입은 특수교육 성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특수교육을 받은 고등부 졸업생들의 진로 실태와 학령기 진로교육 및 학령기 이후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정희섭 외, 2005).

특수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졸업 이후 생활과 요구를 파악하는데 있어 주로 조사연구가 사용되어져 왔으며(곽준기, 1995; 박희찬,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수교육 요구 학생들의 학령기 진로교육과 학령기 이후의 진로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연구에서 설명되지 않는 많은 주관적 요인들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인식과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는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졸업 후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을 위한 올바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 졸업생들의 성인생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경험과 졸업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 졸업생들의 학교 및 졸업 후 생활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지체부자유학교의 교육방향과 중도·중복장애인의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생활 모습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중도·중복장애(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 중도(severe)장애는 심신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중복(multiple)장애는 2개 이상의 장애 상태가 나타남을 말한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는 심신의 장애 정도가 심하고, 2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도·중복장애는 하나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와 정신지체,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등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겸한 상태를 말한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 현상학은 주어진 현상의 발생적·구성적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써 인식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에 그 바탕을 두어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상자의 언어, 신념, 문화, 사회적 관습 등에 내재해 있는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인간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연구 현상의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상호 주관성을 통해 본질 구조를 파악하는 반성 과정을 거쳐 발견된 결과에 대해 현상학적 기술을 하는 연구 방법이다(신경림 외, 2005).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 : 각 개인을 위하여 성과 중심적인 과정 내에서 고안된 교육 활동들로 각 학생들의 욕구나 기호, 취미에 기초하여 교육, 지역사회경험, 고용개발,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의 목표, 그리고 필요시에 일상생활기술과 기능적인 직업평가를 포함한다. 즉, 직업분야 뿐만 아니라 기능 중심, 생활 중심의 교육으로 개인 생활 영역의 교육을 성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외에 개별 학생의 요구에 따라 대학 준비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 참여,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대한 자립적인 생활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학교 재학 시 조기부터 돕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육 방법이다.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위해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써 유료도우미서비스 제도라고 볼 수 있다. PAS라고도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식사, 신변처리, 대필, 외출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비가 지급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다르고 가사노동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부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가정도우미와도 다르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체부자유학교 교육

지체부자유란 비감각적인 신체적 제한이나 건강문제가 학생의 학습이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정도가 심하여 특별한 서비스, 훈련, 교수·학습자료, 시설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송준만, 유효순, 2002).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체부자유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인에는 관계없이 지체(체간 및 사지) 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장차 자활이 곤란한 학생을 지체부자유 교육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지체부자유아의 출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0.5%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50%이상은 뇌성마비와 관련되나 나머지는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전국특수교육요람에 의하면 전국의 지체부자유학교 학생들 중 약 80-90%가 뇌성마비 학생들이며, 이들 뇌성마비(cerebral palsy) 학생 중에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는 언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근육계 질환 등 다양하며, 한 가지 장애만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도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한 지체부자유학교 교육은 각 개인의 장애 특성과 요구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장애개선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

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지체부자유학교는 교과, 치료 교육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는 유치부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고등부 선택중심교육과정에 준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체육교과외의 경우에는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실행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며 보장구 사용 및 관리 방법, 정기적인 진단과 교정치료, 예방 대책 등을 병행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국가수준 특수교육과정을 기초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통합교육과 전환교육 등 지체부자유 학생들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2. 중도·중복장애의 정의 및 특성

지금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중증장애(severely handicaps),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중도·중복장애(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multiple and

severe disabilities) 등이 유사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중도·중복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복지 및 의학 분야에서는 중증장애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모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복장애’, ‘중도장애’, ‘중도·중복장애’, ‘중증장애’ 등은 장애 정도의 심각성과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장애에 심각한 정도로 수반된 장애를 중복장애 또는 중도·중복장애로 사용하고 있다(정동일, 2001).

따라서 중도·중복 장애에 대하여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중복 장애에 대한 정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강조점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중증장애 또는 중도장애(severe disabilities)”라는 용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학습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 또는 감각적·신체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박은혜, 1998).

중도장애아에 대한 1970년대의 정의는 개인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이후의 정의들은 중도장애인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장애를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과 행동적인 문제를 지닌 발달상의 장애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수를 제공하면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목표가 기술 습득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의 지역사회 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중도장애인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

요에 따라 활동이나 환경을 수정해 주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이소현, 1998).

미국의 중도장애인협회(TASH: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는 “중도장애인은 통합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질적인 삶을 즐기기 위한 한 가지 이상의 주요 활동에 있어서 확장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연령의 개인을 의미한다. 지원은 독립적인 생활, 직업,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이동, 의사소통, 자조기술, 학습과 같은 생활 활동을 위해서 요구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TASH 정의, Meyer, Peck, & Brown, 1991). 이 정의는 환경과 개인 간의 적응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합된 지역사회에서의 질적인 삶을 언급하고 있다(박은혜, 1998).

다시 말해서 중도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 자기 실현을 하는 등의 적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장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정의 그 자체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나 종류·정도에 관계없이 단일장애를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갖는 상태를 말한다. 중복장애를 구성하는 각 단일장애 가운데 그 주된 장애를 주장애, 다른 장애를 수반장애(2차 장애)라고 부른다. 그런데 단일 장애를 동시에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를 중복장애라고 할 경우, 그들 장애의 복합현상은 매우 다양해진다. 즉 장애 정도에 대해서 주장애 및 수반장애가 모두 경도인 경우, 양자 모두 중도인 경우, 또는 주장애가 중도이고 수반장애가 경도인 경우 등 매우 복잡 다양하다(곽승철 외, 2001).

중도·중복 장애인의 특성에 관하여 김삼섭(1996)은 일반적인 발달 능력, 자신을 돌보는 일,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 환경 자극에의 반응, 생활연령이

같은 또래들과의 상호교류 등과 같은 영역에서 현저한 기능적 불일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 정의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과 중도·중복장애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비교함으로써 장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어떤 단계에서는 중도·중복장애로 분류되었다가 다른 단계에서는 중도·중복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수정, 1999).

이와 같이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에 따라 정의되기 보다는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환경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점차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주희, 2003).

위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중복장애인이 사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활동이나 환경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환경구성과 지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중도·중복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이념적 배경

1) 중도·중복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이념적 배경

중도·중복 장애인의 재활은 신체·정신·사회·직업·경제적 가용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 중의 핵심적 과제는 정서적·개인적 안정을 통해 사회적응을 가능하게 하면서 직업재활을 이루는 것이다.

재활에 관한 이념적 배경은 세 가지 측면(시민 권리의 측면, 존재론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 인간의 다양한 개별성 측면과 자기 성취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시민 권리의 측면

기회의 균등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와 무관하게 그들이 취업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존재론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 혹은 경제적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개인이며, 개개의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분과 상호 작용한다.

(3) 인간의 다양한 개별성의 측면과 자기 성취의 측면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로 장애에 대한 심리적·개인적 반응은 개별적으로 다양하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욕구나 잠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각 개인마다 독특한 욕구, 소질, 대처 방법 및 목표가 있다.

‘삶의 질’ 개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 발달하고, 자기를 실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받고 개인적 의견을 표명하며, 자기 결정을 촉진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지역사회에 이런 장소와 거점을 발견하고 창출하며 확장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이계영, 1997).

2) 장애인의 삶의 질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제14회 미국재활·국제대회(1980)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4회 국제재활의학회(1982)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와 같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처럼 정상 상태로의 회복보다는 제한된 상태 하에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수계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오혜경, 백은령, 2003).

그럼에도 ‘삶의 질’ 개념이 장애인 분야에 도입됨으로써 하나의 인권 보호적 차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철학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적 삶의 모든 요소를 ‘삶의 질’ 개념 하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삶의 질’ 개념은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되고 개념을 구성하는 차원도 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삶을 구성하는 물리적·객관적 조건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대해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하여 가지는 만족도, 성취감, 안정감 등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의미로 통용된다. 즉 일반적 차원에서 만족감, 안정감, 행복, 충족, 성공, 자율성, 독립성, 의미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할 기회 등의 요소들로 ‘삶의 질’을 개념화할 수 있다(이계영, 1997).

물론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의 질’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종종 장애인에게 ‘삶의 질’이란 ‘보호의 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삶의 질’에 대한 구분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주관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Halpern(1994)은 주관적인 영역에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을, 객관적 영역에는 성숙과 숙련(growth and mastery), 건강,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Flanagan(1982)은 ‘삶의 질’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영역화하여 그 영역을 크게 5가지로 대별하고 하위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백은령, 2002).

- ① 개인의 성장발달 : 건강, 교육, 독립성, 정신건강 등
- ② 상호관계(대인관계) : 결혼여부,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친분관계
(우정), 사회복지 등
- ③ 지역사회에의 참여 : 여가활동, 물리적·사회적 통합의 정도 등
- ④ 거주 환경 : 주거, 이웃, 거주지역(도시/농촌), 치안정도 등
- ⑤ 안정성 : 고용여부, 직장, 생활수준, 재정적 능력 등이다.

지체장애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오혜령, 백은령(2003)의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개인요인, 환경요인, 사회통합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장애를 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통합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수입이 높을수록, 이동 및 접근환경이 편리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지기반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 의료, 주거, 고용, 생활환경 등의 제도적 지지환경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가족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장애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3) 중등학교 졸업 후의 삶을 위한 의미있는 전환계획

초기의 전환교육의 개념은 장애학생이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역 사회생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주로 직업 교육과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장애학생의 취업 활동뿐만 아니라 주거 생활, 지역사회 생활, 여가 활동, 계속적인 교육 등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이동하여 가족 구성원과 시민 및 직업인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을 위한 준비'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전환이 고등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령기 아동의 삶에 있어서 발달 단계 또는, 하나의 교육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도 중요한 전환의 과정을 거치는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학교에서 성인 생활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박미화, 2003).

이러한 전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의 전환교육 모형은 크게 협의의 모형과 광의의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의 모형은 초기의 전환교육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 전환에 초점을 둔 모형이었다. 반면에 광의의 모형은 고등학교 수준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 혹은 이후 단계에서 직업으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진학, 주거, 사회 참여, 여가 등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모형이었다.

협회의 전환교육 모형에는 미국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국(OSER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의 전환모형(Will, 1984), Wehman, Kregel과 Barcus(1985)의 직업전환 모형, Halpern(1985)의 모형, Wagner(1991)의 전환 경험과 성과의 개념적 모형, 국립특수교육원(이호자, 1997)의 3단계 전환교육 모형 등이 있다. 한편 광의의 전환교육 모형에는 Brodin(1993), Silington, Clack와 Kolstoe(2000)의 모형, 김진호(2001)의 한국에 적합한 전환교육 모델 등이 있다(박미화, 2003).

전환(transition)이란 근본적으로 공동체에의 참여이며, 개인 선택의 존중이고, 생활 능력의 확보를 뜻하기에 직업재활의 필요를 전제로 하여 기업과 학교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토대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Nadler & Shore(1980)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이계영, 1997).

첫째, 장애정도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정도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둘째,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각자가 직업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에 우선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가능한 한 개인별 고유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방안이 채택되어야 하고 개인적 선호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기본 원칙은 동등성(equity), 접근성(access), 지속성(duration), 연속성(continuity), 소비지향성(consumer directed), 개별성(individualization)을 포함한다.

다섯째, 서비스는 단지 직무유지(job retention)만이 아닌 직업·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

여섯째, 자연스러운 지원체제가 확보되어, 개별성에 입각한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장기 서비스는 행동 유발적이어야 하며, 반동적이어서는 안된다.

여덟째, 장기적 지원은 단절없이 가능한 한 지속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모형개발(김진호, 2001; 박미화, 2003)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는 전환교육 시범학교(대전 해광학교, 2000; 은혜학교, 2001)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런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시행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약 20년의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2000년도부터 장애인 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2010년까지는 국가발전 수준에 걸맞는 장애인 복지 선진국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06).

① 장애수당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

소 장애인중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이다. 지급금액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해당한다.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에 해당한다.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장애아동 부양수당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가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7만원이다.

③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④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된다. 가구규모별 월소득이 1인 가구 47만원, 2인 79만원, 3인 109만원, 4인 137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되며 지원내용은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연 1회 1인당 10만원의 교과서대와 4만원의 학용품비, 중학생에 한하여 1인당 2만8천원의 부교재비가 지급된다.

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 대상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재활보조기구로는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자세보조용구 등 다양하다.

⑦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등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지원내용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각종 세금 면제, 요금할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이 있다.

5.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인간은 누구나 학교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중도·중복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장애정도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 통합 철학이 확산되면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5개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5년에 다시 개정된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고용분담금제 및 장애인고용지원제 등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를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조정을 피하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령 제17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통합 고용을 위해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 적응을 지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경쟁고용 모델, 지원고용 모델, 보호고용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쟁고용 모델 : 일반기업에 취업해서 근로환경의 큰 개조나 조작성 가함이 없이 일반 직업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고용형태이다.

② 지원고용 모델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가정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역기업에 유용한 노동력으로서 역할과 비장애인과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지원고용은 지역 사회 내 통합적 작업환경에서 직업재활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고용하며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고 정규적인 원급이나 주급을 받을 때 부족한 노동력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다.

③ 보호고용 모델 : 최근까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서비스는 보호작업장으로 한정되어 부적절한 지원을 받거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많았다. 보호고용은 경쟁고용이나 지원고용이 곤란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이나 생산성은 낮으나 장·단기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고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취업은 주로 경증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해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에서도 장애 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 확대와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강화를 구상하고 있어, 앞으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서비스 개선을 기대해 본다.

6. 중도·중복장애인의 진로 및 생활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도·중복장애인 대다수는 특수학교 졸업 후 집에 머물고 있어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상·하지 기능이 대부분 마비되어 있어 기업의 시설미비와 고용주의 부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추해 볼 때 외국보다 중증장애인 고용이 어렵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박석돈, 2000).

최근 5년간 특수학교(급) 졸업자 1,334명을 대상으로 한 졸업 후 진로 연구에서 지체장애학교 졸업생의 61.5%가 가정에 거주하고, 45.6%는 시설거주, 7.4% 전공과 진학, 10.4% 자영업, 기타 5.2%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교(급) 졸업자 전체의 졸업 후 진로는 51.1% 가정거주, 30.6% 시설거주, 6.9% 전공과 진학, 5.3% 자영업, 6.0% 기타로 나타났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6년 1/4분기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구직자수는 전분기 대비로는 3.3%가 감소하였고,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0.6% 증가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중 정신지체 구직자가 35.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24.9%, 청각장애 15.0%를 차지하고 있다. 1/4분기 중증장애인의 취업자수는 1,226명으로 전분기 대비 25.6%,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4.81%로 전분기 대비 4.43%, 전년 동분기 대비 0.2%의 취업률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한편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장애인 먼저, 1997)에 의하면 고용주의 이해부족(45%), 직장의 편의시설미비(29%),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13%),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 곤란(6%), 직업훈련부족(4%), 출퇴근 곤란(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동료직원의 편견과 이해부족 그리고 일반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06)에서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생계보장(48.9%)과 의료혜택 확대(19%)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로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55.2%가 집밖에서의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중 특히 뇌병변장애가 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기능이 열약한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7. 선행연구 고찰

“특수교육의 제공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라는 물음은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 및 부모, 그리고 특수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내외에서는 ‘특수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떠난 장애청년이 학교를 떠난 후 어떻게 성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박희찬(1995)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4개교에서 5년간 졸업한 454명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취업과 독립적인 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취업자는 136명(30.0%), 미취업자는 236명(52.0%), 직업훈련 등 기타는 82명(18.1%)으로 나타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취업 외에도 정신지체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내의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22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전일제 취업이 44명으로 20.0%, 시간제 취업이 9명으로 4.1%, 미취업이 115명으로 52.3%, 직업훈련이 32명으로 14.5%, 그리고 계속교육이 20명으로 9.1%이었다. (박희찬, 1993)

또한 광준기(1995)는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해 지체부자유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25% 미만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취업하고 있음을 조사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장애인이 받게 되는 질은 사회내의 재활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학교

체제와 협조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가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학교체제를 떠나 성인 사회로 나아가는 장애인이 조화롭게 직업, 거주, 교통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5년간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 1,334명을 대상으로 한 국립특수교육원의 졸업생 진로실태 조사(2005)에 의하면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의 35.2%가 직장을 가진 취업자이고, 64.8%가 직장을 가지지 않은 미취업자(가정거주, 시설거주, 자영업, 대학진학 포함)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지체부자유학교 졸업생의 35.1%가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취업률만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조사대상자 208명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135명의 졸업 후 진로분포는 61.5%가 가정에 거주하고, 15.6%는 시설거주, 7.4% 전공과 진학, 10.4% 자영업, 기타 5.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 중 미취업자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장애 성인이 많고, 학교 졸업 이후 무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원하지만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의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고용상황 전반이 열악하고, 직장의 직무수행에 다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직장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며, 직장의 적응·유지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현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안정된 직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직무수행 효율화를 위하여 장애인식 개선 혹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게 성인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축

이 되는 전문가와 장애인의 가족, 그리고 장애 성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Ferguson, Ferguson, Jeanchild, Olson, & Lucyshn, 1993). 이 연구는 장애 성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진행된 것으로서, 질적 연구의 장점인 개방적인 탐색을 통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기초의 도출을 토대로 이후의 프로그램 개발까지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장애인의 가족, 성인 장애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서로의 관계들을 관찰한 연구를 통해, 성인 서비스에서 장애성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Amado, A. N. & Lyon, P. J.(1992)의 연구는 각 개인의 장애특성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조로 장애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이다.

또한 성인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학령기 이후의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 지원 방향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생활과 이들의 성공요인을 다룬 Reiff, Ginsburg, & Garter(1995)의 연구와 장애 성인 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Walker(1999)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성인기의 장애인의 삶의 모습과 회고를 통하여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에 방향을 제공하는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박은혜, 2001).

특히 Walker(1999)의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로 있는 장소에 대한 분석(장애인을 위한 장소와 일반 대중을 위한 장소, 공공 장소와 개인적인 장소, 직업을 위한 장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과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소속감의 정도, 친숙성의 정도, 안전성,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재활 서비스의 원칙들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장애 성인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과 관련한 학교 교육 및 졸업 후 생활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분석함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 방법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는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 15명과 그들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 기준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G광역시 지체부자유학교 2001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졸업한 졸업생
- ② 완전 고용되거나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졸업생
- ③ 지체부자유를 주장애로 가지고 있으며 정신지체, 언어장애 등을 수반하고 있는 졸업생

위의 선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전에 피면접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면접의 동기와 목적·내용·방법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고, 면접 일시를 결정한 다음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과 면접을 병행하거나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면접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중도·중복장애졸업생과의 면접은 4명,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부모님과의 면접을 병행한 졸업생은 5명,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면접한 졸업생은 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 중 남자는 9명 여자는 6명이었다.

면접에 참여한 졸업생의 연령은 20~28세였고, 부모님의 연령은 45세~58세까지 다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장애를 살펴보면, 대부분 뇌성마비 1급에 해당하였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참여자는 7명이었다. 또한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낮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를 가진 졸업생은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대상자 번호	성 별	연 령	장애유형	장애 상태	면접자 (기호)	
					학 생	부 모
1	남	28	뇌성마비 1급	걷는 자세가 약간 불안정하나 스스로 이동가능하며, 인지 능력이 다소 낮으나 일상생활 가능함.	S1	P1
2	여	26	뇌성마비 1급	자세가 불안정하기는 하나 다른 보조장구 없이 스스로 이동가능하며 일상생활 가능함.	S2	P2
3	남	26	정신지체 2급	인지능력은 낮으나 신체적 능력면에서는 양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음.	S3	.
4	여	25	뇌성마비 1급	인지 능력이 양호한 편이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시력이 좋지 않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함.	S4	.
5	남	25	뇌성마비 1급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는 어려움 없음.	S5	P5
6	여	25	뇌성마비 1급	자세가 불안정하기는 하나 다른 보조장구 없이 스스로 이동가능하며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은 없음.	S6	.
7	남	22	뇌성마비 1급	크리치를 이용해 이동하나 인지 능력이 양호하고 상지 기능, 손기능이 양호함.	S7	P7
8	여	22	뇌성마비 1급	실내에서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며, 인지능력이 있어 기본적인 개념 및 학습이 가능함.	S8	P8
9	남	24	뇌성마비 1급 정신지체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기본적인 의사표현과 신변처리 신호 가능함.	.	P9
10	여	22	뇌성마비 1급	약간 불안정하긴 하나 스스로 이동가능하며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가능하고 간단한 작업은 할 수 있음.	.	P10
11	남	21	뇌성마비 지체1급	인지 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손 기능과 신체적 기능이 열약하여 스스로 신변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P11
12	남	21	뇌성마비 1급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럽기는 하나 이동 및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주지 않음.	S12	.
13	남	21	뇌성마비 1급 정신지체	장애가 심한 편이어서 이동하기, 착탈의, 대소변 보기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아 생활함.	.	P13
14	남	21	뇌성마비 1급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외에서 이동 시에는 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함.	.	P14
15	여	20	뇌성마비 1급	자세가 약간 불안정하나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며 사회성 및 적응 능력은 양호한 편임.	.	P15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면서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연구자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는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접 질문지는 관련 선행연구 논문의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 가일부 수정·보완하여 개별면접을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졸업생과 부모에 대한 질문지의 내용은 각각 <표 III-2>과 <표 III-3>와 같다.

<표 III-2> 졸업생에 대한 면접 질문지

번호	구분	질문 내용
1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	귀하가 받았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앞으로 귀하와 같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졸업 이후의 생활	귀하의 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귀하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어디서, 무엇을 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		귀하가 희망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장애가 심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생을 피면접자로 한 면접에서는

학교교육 경험에 관한 2문항,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생활에 관한 5문항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II-3> 졸업생 부모님에 대한 면접 질문지

번호	구분	질문 내용
1	일반적인 사항	자녀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유형, 장애등급, 졸업 연도
2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	자녀가 받았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 귀하의 자녀와 같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졸업 이후의 생활	귀하 자녀의 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귀하 자녀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귀하 자녀의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		귀하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어디서, 무엇을 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		귀하의 자녀가 희망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장애가 심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생의 부모를 피면접자로 한 면접에서는 졸업생에 대한 면접 문항에 자녀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된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면접

면접에서 참고로 할 질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8월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생 2명을 피면접자로 하는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면접과정을 녹음하여 피면접자의 의견을 수집·분석한 후 본 면접에서 사용할 질문들을 보완하였다.

2) 본 면접

본 면접은 2006년 8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졸업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으며,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면접을 병행하거나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면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집이나 커피숍, 주위가 조용한 옥외 휴게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시간은 평균 약 90분 이었으며 구체적인 면접 소요시간과 장소는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소요시간 및 장소

대상자 번호	면접자(기호)		면접소요시간	면접장소
	학생	부모		
1	S1	P1	60분	연구 참여자의 집
2	S2	P2	50분	연구 참여자의 집
3	S3	·	60분	커피숍
4	S4	·	120분	연구 참여자의 집
5	S5	P5	150분	연구 참여자의 집
6	S6	·	50분	커피숍
7	S7	P7	150분	연구 참여자의 집
8	S8	P8	50분	연구 참여자의 집
9	·	P9	70분	커피숍
10	·	P10	150분	교회 휴게실
11	·	P11	90분	연구 참여자의 집
12	S12	·	100분	연구 참여자의 집
13	·	P13	130분	연구 참여자의 집
14	·	P14	50분	커피숍
15	·	P15	120분	공원

면접 시 연구자는 준비한 질문을 위주로 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연구 참여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전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Digital Recorder LVR-205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타당화검증

Digital Recorder LVR-205를 이용하여 녹음한 자료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글 2005”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한 동료교사 1인이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전사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자간 0, 장평 100으로 작성하였을 때 A4 용지 78 쪽에 달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경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방법으로 현상을 확인하고 구조화하여 결과를 서술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나 분석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김미옥, 2002).

이 연구에서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다시 확인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참여자와의 면접을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탐구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해 내었다.

2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진술들을 주의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 하였다.

3단계에서는 각 의미있는 진술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었다. 이 단계

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위해 면접 자료를 자세히 읽으면서 의미의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 내에서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하고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자는 원래의 자료와 관계없는 의미를 표현해서는 안 되므로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진술 내에서 의미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4단계에서는 표현된 명확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하였다.

5단계에서는 모든 자료의 분석결과를 철저하게 서술하여 통합하고, 가능한 기본 구조를 확인하여 명료한 진술로 조사한 현상을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봄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신경림 외, 2005).

이 연구에서 실시한 타당화 검증방법은 Padgett(2001)이 제안한 동료집단(peer support group)의 조언 및 지지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동료집단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하여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전이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수교육전공 교사 1인과 특수교육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 1인을 선정하여 분석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견제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점과 조언을 경청하였다. 또한 면접을 진행하고 전사본을 분석하는 사이사이에 이미 면접이 끝난 연구 참여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의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다른 면접에서 발견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와 토의하는 ‘연구 참여자 재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직업적 가치관은 자료의 범주화와 중심주제 도출 등 전체 연구과

정에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연구자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중등부 교사로서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지도 등 지체부자유 학생들의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또한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졸업 후에도 늘 그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해 온 경험은 질적 연구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연구자의 민감성을 증진시켜 전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IV. 연구결과

1. ‘의미있는 진솔’과 주제의 유목화

이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인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과정에서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면접을 병행하거나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면접하였으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부터 나타난 유의미한 내용은 128개였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고 재조직한 ‘의미있는 진솔’은 55개였다. 이는 학교 교육과 관련한 경험 3개, 졸업 후 생활과 관련한 경험 15개 등 모두 18개의 주제군(themes)으로 다시 유목화(categorize)되었다.

1)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의미있는 진솔을 찾아내어 관련된 주제어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유목화한 결과 3가지의 주제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V-1>은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을 의미범주화를 피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V-1>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p>졸업 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작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적인 훈련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좀 더 낮지 않았을까... • 일단 학교를 나오게 되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다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 졸업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개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적 요구를 지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 쪽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아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 정말 필요한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치료나 재활 3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p>감사드리는 마음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말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특히 컴퓨터를 너무 잘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 감사할 따름이지요. 지금도 맨날 학교간다고 가방싸는데...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은 장애특성 및 능력에 따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 개개인의 장애특성과 능력은 각기 다른 진로요구를 갖게 하고

진로를 결정짓게 되므로, 결국 졸업 후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작업 기능 및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능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희망하였다.

• 일할 때 작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기능적인 훈련을 더 많이 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말 공부해서 그걸로 취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일찍 결정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네요.(S7)

• 학교 다닐 때, 요리도 해 보고 은행이나 동사무소에도 현장 체험학습으로 가보고 하면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라도 생활하고 있다고 봐요. 고등학교 때는 1학년에서 부터 공부 쪽으로 나갈 거면 공부, 아니면 아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졸업한 후에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요.(S12)

• 개인에 따라 특성에 맞는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졸업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학교를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다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요.(P11)

한편 직업전문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졸업생

들의 경우에는 생활기능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부분에도 비중을 둔 교육을 원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치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생활에 감사드리며 졸업 후 집에 있음을 못내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 직업전문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고 후회가 돼요. 그땐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지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느껴요.(S12)

•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부만이 아니고 치료나 재활 3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그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시켜 주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막상 졸업하고 보니까 세 가지 부분 중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애들 재활치료도 안되고 한다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인성교육이나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P15)

• 감사할 따름이지요. 우리 아이가 맨날 맨날 학교 간다고 가방 싸는 게 된대요. 학교생활이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그 좋아하는 친구들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지요.(P14)

2) 졸업 후 생활에 대한 경험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졸업 이후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은 고용, 이용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 여가생활, 이동 및 교통수단, 현재의 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이들이 장차 원하는 삶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있어 중도·중복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조차 소외되어 실제 생활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고용

중등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을 한 학생을 제외하였고,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을 대학 진학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들로 제한하였으므로 중등학교 졸업 이후 고용의 문제는 바로 이들의 삶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졸업 후 생활 중 고용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 범주화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면 다음 <표IV-2>와 같다.

<표 IV-2>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고용)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일하고 싶어하나 취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취업원서 내 봤어요. 그런데 취직이 어렵대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는 워낙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 아니 우리 애처럼 장애가 심한 애들은 돈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신체장애를 보완해 주는 보조공학서비스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이 불편하니까 속도가 느릴 수 밖에... • 몸이 불편한 만큼 보조장구나 역할 분담을 해주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단순한 작업 능력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고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중도·중복장애인이기는 하나 작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정상적인 고용이 되어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다소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그마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 고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해서 00산업(칫솔 포장)에서 3주 동안 일했었어요(지원고용). 그런데

그때 앉아서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워커를 이용해 걸어야 하다보니까 물건을 가져오고 가져다 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취직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쉽네요...(S7)

• 무엇보다 취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혼자 할 수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여기 그룹 홈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독립해서 살고 그리고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사무보조면 좋겠지만 제가 그쪽은 아무래도 힘들 거 같고 생산직이라도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S12)

또한 작업능력이 있는 연구 참여자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취업 원서를 내고 직무평가를 받았으나 결국 취업을 하지 못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취업을 통해 많은 임금을 아예 원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작업 능력이 있는 중도·중복 장애인의 경우에는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임금 수준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고용, 특히 중도·중복장애인의 고용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일반인과의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으며, 작업 활동 시 신체장애를 보상할 수 있는 보조장구가 개발·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 취업지원서 냈었어요. 그런데 취직이 어렵대요. 공단에 원서내고 직무평가도 했었는데 어렵대요. 직업

전문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업재활센터에 갔었는데 저는 손이 힘들어서 작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못 다녔어요. 그 일은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그 쪽에서 일하고는 싶은데... 손이 불편하니까...(S6)

• 임금을 많이 원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저 임금 아니 그 이하라도... 일하면서 약간의 보수만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장애가 심한 애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좋지요.(S5)

• 주위에서 얼마나 만나고 해요. 처음에는 5만원 10만원 받다가 어느 날은 일이 많다고 20만원 받아왔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워낙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지가 번 것 받아서 점심 값 내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자꾸 정부에서 얼마 나올텐데 왜 그럴까 해요. 못해도 한 30만원은 줘야지 처음에는 점심 값도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받아서 점심 값 내고 하면 사실 남는 게 없더라구요.(P7)

• 장애인들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고, 몸이 불편한 만큼 거기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보조 장구나 역할 분담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애가... 손이 불편하니까 속도가 느릴 수 밖에요. 컴퓨터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인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컴퓨터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거 같아요.(P11)

이처럼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간절히 일하기를 원하였다. 일한 대가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들은 돈보다는 단지 일한다는 그 자체에서 생활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사람에게 있어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일의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므로 장애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통합이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조인수, 2006)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2) 이용시설 및 기관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 및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전문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직업재활센터,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센터가 있고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으로 되돌아가 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도·중복장애인의 삶의 경험을 들어 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통해 뽑은 주제어는 갈 데 없는 중도·중복장애인,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었다.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결국 중도·중복장애인은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결국 집에서 생활해야 함을 경험한다.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졸업 후 생활 중 고용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 범주화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면 다음 <표IV-3>과 같다.

<표 IV-3>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이용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갈데없는 중도·중복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갈 데가 없어요. 엄청 울었어요. 이런 데서까지 우리가 소외되니까... • 좀 답답하더라구요. 아이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졸업할 때 되니까 정말 딱 벼랑에 서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 되니까 막막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1년 놀다가 다시 평생교육원 다니고 있어요. • 직업전문학교 졸업 후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취업이 되지 않아 1년 후에 다시 다른 과를 들어갔어요. 올해 졸업인데 또 걱정이네요.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인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변처리가 어렵거나 신체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졸업생이 직업전문학교나 재활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 장벽을 경험하게 되고 아울러 커다란 정말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이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변처리가 어렵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중도·중복장애인은 결국 이용할 수 없는 좌절을 맛보게 되고 중도·중복장애로 인해 다시 한번 장애라는 범주에서 소외됨을 느끼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중증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갈 데가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이런데서 까지 우리가 소외되니까... 이렇게 까지 하면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하고... 못살 거 같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P11)

• 장애가 경한 아이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애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어디에도 가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P13)

• 좀 답답하더라구요. 애기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졸업할 때 되니까 정말 딱 벼랑에 서있는 느낌이더라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애처럼 장애가 심한 애들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장애가 덜 심한 애들은 학교도 가고, 센터도 가고 하는데... 우리 애처럼 돌봐줘야 하고 장애가 심한 애들은...

여기저기 알아봐도 학교에서처럼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다 해주는 데가 없더라구요. 우리 애는 치료도 필요하고 한데...(P14)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한 직업전문학교나 전공과, 보호작업장은 정해진 수업 연한을 마친 후에 취업과 연결된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결국 취업과도 연결되지 않아 그 기간을 마친 중도·중복장애인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심지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교육·훈련기관을 찾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졸업하고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만 있기 뭐하니까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 생각하고 거기
(전공과) 보내요. 근데 벌써 올해 졸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문제네요. 졸업하면 또 문제네요. 네 그렇죠. 평생문제예요...(P8)

•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갔어요. 2년 다닌 후
에 졸업했는데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일할 수 있
는 곳을 알아봐도 힘들다고 하고... 정말 무언가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보내고 나서 직업전문학교에 다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보처리학과를 졸업했구요. 지금은 내가
배우고 싶은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직업전문학교를 졸
업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내에 졸업하는
데... 취업이 안되면 다시 집에 있어야지요. 하지만 집에 있기 싫
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간단한 일은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워요.(S6)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
관을 마칠 즈음이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극도의 불안함을 경험함을 볼
수 있다. ‘딱 벼랑에 서 있는 느낌’, ‘졸업할 때 되니까 막막하더라’,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뭘 해야 하나?’ 라는 진술에서 그들의 심정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이제 학교교육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적·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은 후에 취업은 고사하고,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되돌아가 하루하루를 별 의미없이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의 전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많이 있다.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가 있고 대학 재학 중에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한다. 또한 졸업 후에는 자신들의 전공에 의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중복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들의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현장교사의 바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이나 전공부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과 보호 작업장을 겸한 공간이 필요해요.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졸업 후,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수교육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김정자, 2006).

(3) 여가생활

신체장애로 인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장애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 및 신체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기회가 제한되기에 이들에게 있어 여가생활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체험을 들어보았으며, 이를 유목화한 결과 친구와 주로 시간을 보냄, 무료로 보내는 시간들 등 2 가지의 주제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중도·중복장애 졸업생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혼자서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표 IV-4>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여가생활)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친구와 주로 시간을 보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랑 수다 떨어요. 전화로... • 친구만나서 하고 싶은 일 해요. 영화도 보고...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지낸다는 게 참 힘들어요. • 집에서 텔레비전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맨날... 하두 답답하니까 자꾸 나갔다 오라고 해도 꿈쩍도 안해요.

연구 참여자 중 스스로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인지 능력이 있는 졸업생들은 가끔씩 친구와 만나 영화도 보고 하는 반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인지 능력이 다소 낮은 중도·중복장애 졸업생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무료하게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랑 수다 떨어요 전화로...그리고 시내 나가고 싶을 때는 나가서 영화도 보고...(S4)

•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보고 텔레비전이 친구예요. 맨날 텔레비전 봐요(답답해함). 책은 아예 안보고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 봐요. 텔레비전이 친구죠. 친구.(P8)

• 복지관에서 일 끝나고 오면 거의 집에서 지내요. 돈 줄테니까 친구들과하고 놀러 다니라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맨 날...그래서 하두 답답하니까 가게 가서 뭐라도 사오라고 하면 안 간다고 그러고. 자꾸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교회라도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P7)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여가생활과 관련한 면접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답답함도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도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맨 날 텔레비전 봐요’, ‘하두 답답하니까 나갔다 오라고... 꿈쩍도 안해요’ 이러한 진술은 모두 부모님에게서 들은 진술들이다.

또한 친구와 여가시간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으나, 특별히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친구가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4) 이동 및 교통 수단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 생활에 있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체험을 유목화한 결과,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음,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기엔 너무 위험함 등 2가지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졸업 후 생활 중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범주화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면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커를 짊고 걸어가야 하는데, 바쁜 시간에 버스타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 차량 때문에 힘들어요. 차량만 되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가 있지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엔 너무 위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은 좁고, 인도에 차 좀 세워두지 않았으면...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차도로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 •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사무실에도 가지 못해요. • 전동휠체어 관리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전동휠체어의 많은 보급으로 근거리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의 턱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한 주행이 어려워 위험한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휠체어가 고장나거나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대한 부담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콜밴이나 복지관 차를 이용하는데 콜밴 이용 시 너무 비싸고 복지관 차량지원은 기초 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처음에 컴퓨터 배우려고... 집에서 버스를 타고가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워커를 짊고 걸어가야 하고, 모두들 바쁜 시간에 버스 타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요.(S7)

•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전동휠체어로 사무실로 가는데 차도로 가요. 엄청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도

로 가지를 못해요. 울퉁불퉁하고 턱있고 거기다가 차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어서 도무지 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비켜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도로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S4)

• 필요할 때는 복지관이나 부름의 전화를 이용하는데 그것도 수급권자는 무료로 해줘요. 수급권자가 아니면 돈을 내야하는데 엄청 비쌌어요.(P11)

이동의 문제는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전동휠체어의 보급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전동휠체어의 보급에 따른 환경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엄청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울퉁불퉁하고 턱있고...’, ‘한번 고장나면고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등의 진술은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지지 않아 큰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토로한 것이다.

(5) 장애인 지원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생활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낸 결과 장애인 지원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의 지원,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등 2가지

주제어로 구분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된 지원에 있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 많은 차이를 보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차량 지원 등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표 IV-6>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서 집안도 넉넉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 거죠. •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들... 유료라도 이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람의 장애상태를 고려해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 아이들은 물리치료가 꼭 필요해요 • 애들 아빠가 00이 데리고 치료 갔다오면 오전이 다 가버려요. 온전히 애한테 매이는 거예요.

면접에 참여한 중도·중복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들어, 활동보조인이나 차량이용 등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중도·중복장애인이 부득이한 경우 유료 서비스도 신청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 가끔 활동보조인이 와서 저랑 같이 시장보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활동보조인도 수급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수급권자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를 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S5)

• 기초수급자 아니면서 집안도 넉넉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해서 정말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활동보조나 자원봉사 같은 거는 집이 부자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P11)

• 기초생활 수급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데 너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어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하니까요.(P14)

중도·중복장애인들은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뇌성마비를 주 장애로 지닌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경우에도 졸업 후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서비스 지원을 호소하였다.

• 아이들 치료 그건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크긴 했지만 몸이 불편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집에서 제가 조금씩 잡아주곤 하지요.(P13)

• 애들 아빠가 00이 데리고 치료 갔다오면 12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히 애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는 꼭 필요하니까...(P14)

(6) 앞으로의 삶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졸업 후 생활 경험은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생활하거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면접자 대부분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희망하는 삶에 대해 많은 진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희망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중도·중복장애졸업생과 그 부모와의 면접에서 찾아낸 의미있는 진술은 4가지 주제어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표 IV-7>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앞으로의 삶)에 대한 중심주제 도출

주 제	의미있는 진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 끼치지 않고 제가 잘 살아야 하는데... •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보고 떠나야지. 이 엄마가 떠나야지... • 저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야 걱정을 안 할 텐데... 동생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장애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다 다르잖아요. 장애아 지원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주거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한 몇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복지사가 같은 동에 살면서 간간히 체크해 주고...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는 너무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졸업할 때가 되면 갈 데가 없어요. •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물론 면접에 참여한 부모님들도 중도·중복장애로 인한 독립생활의 어려움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를 지니며, 성인기 생활을 위해 독립하여 혼자 지내기보다는 소규모 주거 공동체에서 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개인의 장애특성과 요구, 능력에 따라 다양한 재활적·심리 사회적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도 호소하였다.

•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아야만...사실 장애인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다 다르잖아요.(P10)

• 독립한 몇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집에서요. 그리고 관리해 주는 선생님이나 이모, 복지사 같은 분이 같은 동에 살면서 간간히 체크해 주고 혹 밥해먹기 힘든 사람은 함께 식사를 같이하고 하면 서로 외롭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P5)

•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너무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고3 졸업할 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요? 장애 성인을 위한 센터가 있어서 아플 때는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각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큰 걱정없이 졸업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졸업할 때가 되면 꼭 벼랑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P14)

2. 체험의 기본구조와 의미

위에서 제시한 의미있는 진술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체부자유학교
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관한 10개의 기본
구조를 발견하였다. 이를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과 졸업 후 생활에 대한 경
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교교육에 대하여는 1가지의 기본구조, 졸
업 후 생활에 대하여는 9가지의 기본구조를 도출하였다. 기본구조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에서의 기본구조는 개인의 장애와 특성에 따른 개
별화 교육과 전환교육이 필요함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기본구조를 통하
여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은 졸업
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중심 교육내용과 졸업 후 생활을 고려
한 전환교육을 필요로 하고, 개인의 장애정도와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을 필요로 하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학교교육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체험의 기본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면 <표 IV-8>
과 같다.

<표 IV-8> 학교교육 경험에 대한 체험의 기본구조와 의미

구분	주 제	기본 구조	명확한 의미
교육 내용	졸업 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	개인의 장애특성과 요구에 따른 개별 화 교육에 기초한 전환교육이 필요함.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학교교육에 대해 감사하며, 개인의 장애와 특성에 따른 개별화 교육에 기초를 둔 전환 교육을 원하며 장애개선을 위한 치료 교육을 통해 재활과 연결되어 지기를 희망한다.
	개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		
	감사드리는 마음뿐임		

2) 졸업 후 생활에 대한 경험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졸업 후 생활 경험에 대한 기본구조는 9가지로 요약되었다. 즉, 고용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음,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보조공학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중도 중복장애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음, 여가 시간에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지냄,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 이용 시 너무 위험함, 장애인 지원이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음,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이다. 이러한 기본구조를 통하여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은 최소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고용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간절히 소망하는 취업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 기기를 개발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고용이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표 IV-9> 졸업 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의 기본구조와 의미

구분	주 제	기본 구조	명확한 의미
고용	일하고 싶어하나 취업이 어려움	고용의 기회가 전 혀 주어지지 않고 보수가 낮음	중도·중복장애인은 간절히 취업하기를 원하나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수 가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신체장애를 보완해주는 보조공학 서비스가 필요함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보조공학 서 비스지원이 필요함	신체장애로 인하여 작업 능력을 다소 떨어지므로 보조장구 지원에 의한 작업 을 희망하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용 시설 및 기관	갈 데 없는 중도·중복 장애인	중도·중복장애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 설이나 기관을 이용 하지 못하고 있음.	지체부자유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중 도·중복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기관 이나 시설마저도 이용할 수 없음에 심 한 좌절감을 느낀다.
	취업과 연결되지 못 하고 있는 직업교 육·훈련 프로그램	직업교육이나 직업 훈련기관에서 교육 을 받고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음.	고등부를 졸업한 후에 직업전문학교나 훈련기관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으나 훈 련기관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집으로 되돌아가거나 다시 훈련기 관으로 진학을 되풀이하고 있다.

구분	주 제	기본 구조	명확한 의미
여가 생활	친구와 주로 시간을 보냄	여가 시간에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지냄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료하게 보내고 있다.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		
이동 및 교통 수단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음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이 있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너무 위험함.	중도·중복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로시설 및 정비가 되지 않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위험한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너무 위험함		
지원 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의 지원	장애인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음.	장애인 지원이 기초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중도·중복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함.	
앞으로의 삶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책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필요로 함.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수준과 정도가 각기 다르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도·중복 장애인을 위한 재활적·심리 사회적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필요로 한다.
	장애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주거형태		
	학교교육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면 마치 벼랑에 서있는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중도·중복장애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그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되는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중도·중복장애인 중 인지능력과 작업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나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받고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기관에서도 졸업할 즈음이면 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겪게 된다.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취업할 수 없어 집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선택한 곳은 직업전문학교 재입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진로경로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경로

졸업연도	대상자	2002	2003	2004	2005	2006 현재
2002년	S1	장애인 복지관				
	S2	직업전문 학교입학	→	직업전문학교 졸업-재가	재가	평생교육원 입학
	S3	직업재활 시설				
2003년	S4		직업전문학교 입학→자퇴	재가		자립생활센터 근무
	S5	학교 교육	직업전문학교 입학	→	직업전문학교 졸업→재가	직업전문학교 입학
	S6		직업전문학교 입학	→	직업전문학교 졸업→재가	재가
2004년	S7	학교교육		지원고용→ 취업안됨 장애인복지관		
	S8		재가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
	S9		장애인복지관		재가	
	S10		단기보호센터	→		
2005년	S11	학교교육				재가
	S12					재가
	S13		직업전문학교 입학	→		
2006년	S14	학교교육				재가
	S15					단기보호센터 →재가

3. 통합적 진술과 유효성 확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학교 및 졸업 후 생활에 대한 통합적 진술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부자유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재학 당시 학교 교육에 대한 경험에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그 부모는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개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개인의 장애 특성, 요구,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은 졸업 이후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고등부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졸업 후 생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고용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하고 신변처리나 이동 시 어려움이 있는 중도·중복장애인 일수록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시설이나 기관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중도·중복장애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잡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직업교육이나 훈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졸업생의 경우에도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 실질적인 취업과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는 등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전동 휠체어의 보급으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근거리 이동 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주로 주행하는 인도가 너무 복잡하고 불법 주차 등으로 주행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차도

로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되어있어 중도·중복장애인은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 차별을 느낀다는 토로를 들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인은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원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받았던 양질의 서비스가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도·중복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재활적·심리 사회적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지속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통합적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원래의 자료로 되돌아가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료를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게 통합적 진술을 읽고 자문을 받아 진술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V. 논의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있어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선행연구 및 이 연구 결과 내에서의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체부자유학교의 교육과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에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있어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점차 중도·중복화되어가고 있는 지체부자유 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고려한 전환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박미화, 2003; 이영선, 2004; 조인수, 2002).

둘째,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좌절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훈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비단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활과 연계되지 못하는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 15명의 진로경로를 정리하여 보면, 자립생활센터 근무 1명, 직

업교육 및 훈련기관 5명, 복지관 2명, 단기보호센터 1명, 재가 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학교 졸업 이후 무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원하지만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정희섭 외, 2005). 또한 지체부자유학교 진로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른 G광역시에 소재한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의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지체부자유학교 졸업생 현황(00학교)

구 분	총 졸업생 수	대학재학생 (대학진학 총학생수)	직업 훈련생	보호작업장		그룹홈 보호센터	주간보호	취업	기타	재가
				복지관	재활센터					
인원수 (%)	241	10(4.1%)	5 (2.1%)	27 (11.2%)	30 (12.5%)	3 (1.2%)	12 (5.0%)	12 (5.0%)	3 (1.2%)	139 (57.7%)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부모형제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이 연구 참여자에 해당하는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직업훈련이나 보호센터에서 지내거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평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부모형제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졸업생들은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회에서의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박석돈, 2000; 조인수, 2006).

셋째,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졸업 후 생활에서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려 하고 집에서는 거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체부자유학생에 대한 여가생활 연구(박정순, 2005; 우미래, 2000; 정재권, 1996)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체부자유 학생들은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하는 활동을 하거나 TV를 보는 등 수동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에서는 이들이 지역 사회 내 주민자치 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지체부자유 장애인은 무엇보다 이동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 자신이 희망하는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만 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무수한 턱 때문에 또는 확보되지 않은 공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복지부 ‘2005 장애인실태조사’에서 2005년 9월말 기준으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용 인구가 1만 2천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급 규모와 속도에 맞게 사회 환경이나 제도, 정책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결론

1. 결론

이 연구는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졸업 후 생활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와 기본구조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졸업 후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완전 고용되거나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졸업생으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면접을 병행하거나 개별적으로 부모님과 면접하였다. 이로부터 18가지의 주제와 10가지의 기본구조를 발견하고,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의 졸업 후 생활에 대한 통합적 진술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졸업 후 생활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일하고 싶어 하나 일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나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거부를 당하는 등 소외와 좌절의 연속적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음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ITP(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화교육계획 시 전환요소를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현재 정도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중도·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형태로의 운영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보호작업장에서 일정 기간을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보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활동 보조인이나 교통지원 등의 장애인 지원제도들이 정말 장애정도가 심하여 부득이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나 생활이 가능한 중도·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중도·중복장애졸업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이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마친 후에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소외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도·중복장애인 중에서도 작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적 서비스와 지원고용을, 장애정도가 심하여 작업은 물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생활기술, 작업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형태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본다.

2. 제언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들의 학교 및 졸업 후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과 졸업이후 성인생활로의 전환과정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중도·중복장애인의 삶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체부자유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영역의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장애영역으로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졸업 후 5년 동안의 생활 경험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성인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수정 (1999). **중증·중복장애 아동 교육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곽준기, 박희찬, 정창곤, 정덕채, 김숙경 (1995). **지체장애인의 전환과정 결과에 관한 중단적 분석 연구**. 서울: 삼육재활학교.
- 곽승철, 김삼섭, 박화문, 안병준, 전현선, 정재권, 정진자 (2001). **지체부자유아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 김미옥 (2002).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36.
- 김정자 (2006). 지체부자유학교의 직업교육. **현장특수교육**, 9·10월호.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주희 (2003). **중증·중복장애아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주.
- 김진호 (2001).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4), 73-78.
- 류애숙, 박희찬 (2000). 중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실태 분석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 33-50.
- 대전 혜광학교 (2001).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개별화 전환교육 프로그램 적용연구**.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대전: 저자.
- 박미화 (2003). **전환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지체부자유학교 교사지각 및 요구 수준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 박석돈 (2000).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학생 (직업)진로교육에 관한 일고찰.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연구**, 35, 39-62.
- 박은혜 (1998). 미국 중증장애아교육의 방향.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연구**, 18, 1-23.
- 박은혜 (2001) 특수교육 및 재활에서의 질적연구의 동향과 과제. **재활**

- 복지, 5(1), 56-84.
- 박재국, 이미숙 (2001). 장애인의 삶의 질(QOL)의 연구 동향.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40(2), 1-25.
- 박정순 (2005). **지체부자유 학생의 여가활동 지도실태 및 보호자의 욕구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산.
- 박희찬 (1993). 지체장애인의 직업전환과정 결과분석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3, 91-120.
- 박희찬 (1995).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 고등부 졸업생의 직업실태 분석. 제2회 이화특수교육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 박희찬 (2002). 장애졸업생 추적조사와 전환교육. 2002학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특수교육학회.
- 백은령 (2002).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과 삶의 질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리뷰**, 7, 111-125.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 (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6). **200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서울: 저자.
- 보건복지부 (2006).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서울: 저자.
- 송준만, 유효순 (2002). **특수아 지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신경립, 조명옥, 양진향 외 (2005).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오세철 (2000). 중증장애인의 고용전략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 교육**, 35(1), 119-133.
- 오혜경, 백은령 (2003).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서울지역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3(2), 157-181.
- 우미래 (2000). **지체부자유 학생의 여가활동 실태 및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 은혜학교 (2001).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 -전환교육 실천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광주: 저자.
- 이계영 (1997). 시설거주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실태 및

- 육구조사 분석 연구 -29개 정신지체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성욱 (2006). 지체부자유학교의 직업교육. **현장특수교육**, 9·10월호.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이소현 (1998). 중도장애아 교육 가능성 및 교육방법론에 관한 전반적
고찰. **재활복지**, 2(2), 75-105.
- 이영선 (2004). IEP에 포함된 전환(transition) 요소에 대해 교사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행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정기, 안성우, 백유순 (2002). 발달 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
회 적응 실태 추적 조사 연구. **발달장애학회**, 6(2), 213-229.
- 정동일 (2001). 제7차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특수
교육 교육과정 연구**, 2, 323-373.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정재권 (1996). 뇌성마비 학생의 여가활동 실태. **중복·지체부자유아
교육**, 28(8), 11-27.
- 정희섭,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인숙 (2005). 특수학교(급) 고등부
졸업생의 진로실태 및 진로 지원체제 구축방안. 안산: 국립특수
교육원.
- 조인수 (2002). 전환교육의 전개과정과 실행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3,
3-50.
- 조인수 (2006). 특별한 교육적 지원 요구학생의 직업·전환교육 실태와
과제. **현장특수교육**, 9·10월호,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서울:
저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기업지원안내서. 서울: 저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장애인 고용동향. 서울: 저자.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06). 2006 전국특수교육요람. 서울: 저자.
- Amado, A. N. & Lyon, P. J. (1992). "LISTEN, LADY, THIS IS

- "MY LIFE" Human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Minnesota.
- Brimer, R. W. (1996). **중증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실제와 전망**(김삼섭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 출판연도 1990)
- Clark, G. M. (2000).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youth with disabilit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장애학생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 제7회 국제세미나 자료집. 안산 : 국립 특수교육원.
- Ferguson, P. M., Ferguson, D. L., & Jeanchild, L., Olson, D., Lucyshyn, J. (1993). "Angles of Influence: Relationships among Families, Professionals, and Adults with Severe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3(2), 14-22.
- Halpern, A. S. (1985). Transition: a look the foundations **Exceptional Children**, 51, 479-486
- Walker, P. (1999). "From Community Presence to Sense of Place: Community Experience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4(1), 23-32.
- Wehaman, P. (1987),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 new challenges for youth severe disabilities. Brookes Pub. Co.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학과	학 번	2005728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최 옥 순 한문 : 崔 玉 順 영문 : Choi Ok-Sun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동부아파트 103동 805호				
연락처	E-MAIL : okzita@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지체부자유학교 중도·중복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영문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of Physically Challenged School Graduate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p>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여부 : 동의(O) 조건부 동의() 반대()</p> <p style="text-align: center;">2007년 2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저작자: 최 옥 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대학교 총장 귀하</p>					